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암초 수두룩

간접고용 8만2300명...무기계약 2만8910명은 포함 안돼

노동계 ‘중규직’·자회사 정규직 반대...신규채용도 감소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한시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이외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무기계약직과 용역·파견 등의 취업자들이 많아 비정규직 ‘제로(0)’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주요 부처들에 따르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전환 선언은 앞으로 다른 부처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각사는 자사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직원수 동향을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사별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형태 및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환 방식은 각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1분기 기준 한전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600명이지만,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을 포함한 간접고용 직원 수는 7700명에 달한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한수원이 7300명, 5개 발전회사가 각 500명, 강원랜드는 1500명, 코트라(KOTRA)는 500명이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청소·경비 같은 일반 업무 이외에 안전관리 등 회사 특수 상황을 감안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평가기술원 등의 계약 연구직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이들 공공기관의 속내는 복잡하다.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무기계약직과 용역·파견 등의 취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의지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



르면 33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 3만6499명이지만, 급여기준 등이 정규직과 다른 무기계약직(2만8910명)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이 8만2300명에 달해 실제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처럼 정규직화 논의가 불똥을 이루고 있지만 문제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있다. 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및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기존의 일반 정규직과 똑같은 직군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정규직 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복지 혜택은 동일하게 보장하되 임금은 ‘직무급(직무 난이도에 따른 급여)’을 통해 적게 주는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과 공공기관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곳의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중규직과 자회사 정규직 채용 모두 고용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임금과 복리 등 처우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산업부 산하 한 공공기업 관계자 역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43.68 (-9.29)
-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1)
- ↑ 코스닥 649.06 (+6.08)
- ↑ 환율 (USD) 1125.10원 (+3.40)



광기술원, 산업원천기술 지역 중소기업에 이전

‘ED용 봉지재 경화기술’ 대성엔지니어링과 MOU

한국광기술원(원장 김영선)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원으로 개발한 산업원천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한국광기술원은 29일 기술이전 협약식(사진)을 갖고 ‘ED용 봉지재 경화기술’을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인 (주)대성엔지니어링에 기술이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기술원이 이전한 원천 기술로는 2억5000만원 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은 LED 패키지 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협력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광기술원 김재필 박사팀이 개발해 이전한 LED 봉지재 경화기술은 LED용 실리콘 봉지재의 경화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0초 이내로 크게 단축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생산 공정 시간을 줄이고, 기존 형광체 침전 문제를 해결해 LED 패키지의 수율과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LED의 저가격화와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대성엔지니어링은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 LED 패키징 완전 자동화 경화 장비를 개발해 사업화할 계획이다.

김영선 한국광기술원장은 “기술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광융합 선도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통해 국내 광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ju.co.kr

F1 서킷서 터보엔진 체험 기아차 참가자 모집

기아자동차는 오는 6월21일부터 23일 까지 영암 F1 서킷에서 열리는 ‘다이나믹 K-드라이빙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이나믹 K-드라이빙 스쿨은 기아차가 고객들에게 실제 서킷에서 기아 터보 엔진 차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 행사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타팅어 출시 기념으로 올해 처음 열린다.

영암 F1 서킷에서는 시속 200km 이상 속도와 경주용 급커브 구간 등 고객들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극한의 주행 조건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행사에는 신차 스타팅어를 비롯해 K9, 모하비, 쏘렌토, K5, 모닝 등 6개 차종 총 12대가 시승차량으로 준비된다. 기아차는 1·2차 각 25명씩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1차~6월21~22일, 2차~6월22~23일로 나눠 1박2일 동안 영암 서킷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오는 6월2일까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또는 K-PLAZA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6월7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김대성기자bigkim@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순천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납세자 불편 살핀 광주국세청 순천세무서 방문 신고서 작성 안내 등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29일 일선세무서 신고현장을 방문해 신고창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이날 순천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찾아 신고상황을 살핀 후 내방한 납세자들의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의무를 다하기 위해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에도 들러 직원들을 위로하면서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지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불황·구조조정·재해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